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 어린이신문

동지

엄마, 아빠와 함께 보는
등지 어린이신문

창간호

2001년 7월 20일

펴낸곳: 곡성문화원 / 펴낸이: 양병하 / 역은: 조준원 /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76 - 4 / 전화: 061-362-0899 / FAX: 061-363-7300

어린이신문 『동지』는 동지기자단이 직접 만듭니다

곡성어린이신문 창간기념 "동지"기자단 고현석 곡성군수 서면 인터뷰



곡성군수 고 현 석

**곡성어린이신문
"동지"기자단이 뽑은 가장
만나고 싶은 분으로
'고현석' 곡성군수님이
선정 되었습니다**

[질문] 군수님의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언제부터 군수님이 될 꿈을 키웠습니까?

[답변] 먼저곡성어린이신문 등지의창을축합니다
동지라는 이름이 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주고 건강
하게 발달되기를 기 바랍니다.

저의 어렸을 때 꿈은 아주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유팩을 얻으며
우유들이기를 동경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농촌에 대한 관심
을 가져서 청년도촌 활동을 하였고 그때부터 언젠가는 고향에서 일할 기
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민초화가 되고 지방자치가 실현
되면서 군수의일을 해볼 생각이 갖게 되었습니다.

[질문] 곡성군에서는 우리 초등학생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일은 교육청에서 담당하
지만 군청에서도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
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일
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생각으로는 곡성의 어린이들이 곡성
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가령 골프장이 있는 조건을 활용하여 골프에 관심있
고 재능이 있는 어린이, 문학에 재능있는 어린이, 도예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어린이 등을 발굴하여 유능한 인물로 키워내는 곡
성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매년 삼진강 문학
학교를 열어서 유명문인과 곡성의 학생들이 만나는 장을 만들
고 있으며, 장학금의 일부를 특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활동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
록 예산을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하는 일, 어린이날 행사 지원, 각
종 체험학습 코스 개발 등이 있습니다.

[질문]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이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계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520명 정도 됩
니다. 이분들은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민원
분야와 도로나 교량, 저수지, 건축 등의 건설분야, 농사와 산림
등의 호적적인 유지와 관리분야, 환경과 경제발전분야, 노인과
청소년들의 복지분야, 문화와 관광분야 등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획하고 보조, 관리하는 분야로 나누어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군수님께서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저는 이분들이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며 큰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
견을 모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외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을 지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정서서 해결하는 일을 하지요

[질문] 군수님께서서는 우리 군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뽑으시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세요

[답변] 좋은 환경과 좋은 인심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랑거리
가 많습디만, 그중 하나를 내세우려면 "중"과 "효"의 고장
이라 하겠습니다. 고려개국공신인 신승겸 장군을 비롯하여
왜란·호란 때의 의병, 구한말과 일제하의 항일열사 등 많은
호국인물을 배출한 고장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름 심장, 그 심장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저희들은 여가 시간이 생기면 놀고 싶은데,
군수님께서서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답변] 저는 여가 시간이 생기면 운동을 주로 합니다. 주로
등산을 하고 가끔 자전거도 탑니다. 또한 시간이 나면 삼국
지, 열국지 등 책을 읽습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
하고 정신과 신체가 모두 건강해야만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질문] 저희 친구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어요?

[답변] 요즘 학생들은 너무 공부와 컴퓨터 오락 등 실내에
서 혼자 하는 일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리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들어요.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운동도 하
고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질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먼저 자기의 가치,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진 귀한 존
재로서 자기를 발견하는 일이겠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자기를 소중히 여
기는 사람이요 하겠습니까.

[질문] 어린이 신문 "동지"를 읽는 친구들이나
학부모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답변]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이 지금의 시절을 어
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고
장과 나라의 장래가 결정됩니다.자기를 표현하고 남을 이해
하며 사랑의 폭을 넓히기 바랍니다. 또한 곡성에서 초등학교
를 다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
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도회지의 학과에서 체험할 수
없는 좋은 환경이 너무나 많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곡성문화원이란?

문화예술 활동과 향토사
조사, 연구등의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곡성문화원장 양 병 하

곡성문화원에서 하는일

1. 지역의 고유문화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보급
3. 지역문화 행사 개최
4.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6.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위한 문화활동
7. 기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3. 향토사료조사

- "곡성실록"발간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곡성사료 및 생활상)
- 내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설치 (5곳)

4. 전시·공연사업(4회)

- 거창여성성형단 합창공연
- 문화원 차인회 독차시음회
- 국립국악원 국악대공연
- 전통민속공연-극단 "굴림"

5. 기타사업

- 문화유적지 순례
- 제1회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수상작품집 발간

2000년 주요행사

1. 문화행사 사업

- 소설가 한승원선생 강연회
- 제1회 효녀심청 유치부 미술경연대회
- 제1회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
- 선진생활문화강연회(2회)
- 곡성문화회장 이채백 선생 강연회
- 광주MBC일씨구 학당 강령구 선생 강연회

2. 문화교실

- 다도교실
- 서예교실

곡성문화원 기본현황

- 소재지 :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구 776-4
- 설립일 : 1965년 3월 22일
- 원 장 : 양병하
- 부원장 : 김중
- 사무국장 : 조준원
- 간 사 : 배소영
- 임 원 : 17명
- 고문 및 자문위원 : 8명
- 회 원 : 134명
- 문화가족 : 33명

저 나무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럴까

이순원 / 소설가

·국성문화원 청소년 예술공모전 심사위원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현무속 문학, 효석 문학상 수상
·'입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I·II', '은비림', '말을 찾아서',
'그대 정동진에 가면', '모델', '이비의 잠, 등 다수

나무와 들꽃 이야기 한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만산홍엽(滿山紅葉), 온 산에 붉은 단풍이라는 뜻이겠지요. 산에들 가 보셨으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단풍이란 붉은게 아니랍니다.

정작 단풍보다 더 붉은 나무들도 많습디다. 제가 보기엔 그중 가장 붉게 물드는게 불나무와 오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뭇잎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줄기에서 나오는 진물도 비슷합니다.

산에 가면, 아니 산에 가셔도 한 해 들판의 농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봄에 목련은 꽃봉오리를 꼭 북쪽으로 향하여 꽃잎을 피웁니다. 그래서 아직 꽃잎을 열지 않은 목련들을 보면 모든 꽃송이가 남이 있는 북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도 내년 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목련처럼 산에 가면 꼭 산아래 들판을 향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도토리 나무와 상수리 나무지요. 다른 과일들은 들판의 벼농사나 밭농사와 비슷한 작황을 보입니다. 날씨가 좋아 들판의 농사가 풍년을 이루면 과일 농사도 풍년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태풍이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면 그 바람에 과일들도 태반은 열매를 땅에 떨어뜨리고 함께 흉년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날 알이 귀하면 과일도 귀하다는 말이 있는 거구요. 그런데, 도토리나무와 상수리나무는 그 반대입니다.

어느해가 어른들과 함께 산소에 추석 성묘를 갔을 때입니다. "올해는 들에 풍년이 들었는데도 굴암이(도토리) 아주 잘 열었네". 앞서 산에 올라가던 한 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굴암이 왜요?"
"아니, 올해는 풍년인데도 굴암이 잘 열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옛부터 도토리 나무와 상수리나무는 꼭 산 아래 들판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는데, 들판의 농사가 흉년이 들 것 같으면 도토리나무나 상수리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결정은 봄과 여름 사이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한 자리에 무심한 듯 서 있는 나무들조차 장차 다가올 여름 가뭄과 여름 태풍을 미리 짐작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나무들은 왜 흉년이 들 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자연의 한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말이지요. 올해는

흉년이 들 것 같은데 우리라도 더 많이 열매를 맺어 이 산의 이웃들을 먹여 살려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 산에 사는 온갖 새들과 온갖 짐승, 그리고 들에 내려와 사는 사람까지도 나무들은 그렇게 겨울양식을 걱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날, 시골에서 자라 저는 그 굴암밭을 참 많이도 먹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다람쥐들이 소풍갈 때 싸가는 점심 도시락이거나 도토리묵이나 해먹는 별식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은 물에 울귀 뚫은내를 가시게 한 다음 곡식 대신 먹는 시골 사람들의 겨울 양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걸 도토리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들판의 농사를 미리 짐작하고 올 한해동안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를 계산한다는 것이지요. 산식구들의 겨울 양식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그런 나무들을 보면 가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워 질때가 있습니다. 산 속에서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나무들도 저렇게 이웃들을 생각하는 데 우리는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도토리나무나 상수리나무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올해 산에 가서 도토리나무와 상수리나무의 열매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추석때 고향에 가면, 그래서 또 산소로 성묘를 가게 되면 그 나무들부터 살펴보게 되겠지요. 우리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어떤 들꽃을 보거나 나무를 보게 되면 고작 저런 열매 하나를 맺으려고 한해 동안 그렇게 있을 피우고 꽃을 피웠나 싶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작은 풀이든 나무든 뜻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들꽃과 나무뿌리들이 지난 홍수에 산을 붙들고 들을 붙들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면 삶의 지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들꽃이나 나무들에게 그들이 한 평생을 살아갈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는 경우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무와 들꽃들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지요. 다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도 모르고, 또 알아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올해도 온 산의 상수리나무들이 자기가 맺은 열매로 이웃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나무들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자연의 작은 질서를 아는 게 세상 이치를 아는 일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학교 자랑



우리 학교는 농악놀이 하면 떠오르는 학교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제 71회 춘향제, 제 5회 전국풍물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4~6학년 어린이는 한 명도 빠짐없이 농악부이며, 월, 화, 목, 금요일에 수업을 마치고 특기적성 시간을 애용하여 1시간동안 농악 연습을 합니다.

꾸준히 농악 연습을 함으로써 저희는 실력이 더 늘어나 흥겨운 농악놀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주에 한 번씩 일요일에 관광열차를 맞이합니다.

또, 우리 학교 1~3학년 어린이는 컴퓨터부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시간동안 특기적성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실력이 늘어서 컴퓨터 대회에 출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상하신 교장선생님께서 저희들이 마음껏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학교는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점점 발전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 오곡초등학교 6학년 1반 정보람 기자

이제는 도서실도 정보화 시대...

요즘은 흔히들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학교 도서실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형 도서편이나 마트 같은 곳을 가야 볼수 있는 바코드·컴퓨터가 학교도서실까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대출증도 만들어주고 자신이 직접 도서실에서 바코드도 붙여봐서 책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니 참 좋은 계기로 생각 합니다. 이런 활동이 지금까지는 그저 손으로만 적어왔던 도서부 도우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피고 있었

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책을 분류별로 나누고 책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힘들게 일을 했

지만 아이들은 바코드로 책을 빌린다는 재미 때문에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또한 책을 읽지 않으려고만 하던 그런 아이들도 재미삼아 한 두 번 둘러보는 것만으로 시작되겠지만은 나중에는 더욱 더 자주 드나들면서 책에있는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머릿속으로 옮겨가는 것이 참으로 기뻐합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책을 빌릴수 있도록 하는 학교가 더욱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중앙초등학교 6학년 김아영 기자

컴퓨터부를 찾아서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아이들에게 컴퓨터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방과후 교육활동 컴퓨터부는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다. 컴퓨터부가 시작되지는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현재 1학년~6학년 모두 40명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훈민정음이라는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카드, 명함, 편지, 엽서, 학급신문, 가족신문등을 꾸며 모았고 현재는 문서작성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중이다.

또한 자격증반을 신설하여 국가고시 워드 자격증을 위해 힘찬 탐방을 출러가며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활용능력에 대한 PC급수제를 도입하여 학기별 2회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지고 3급이상의 학생들에게 인증서가 수여되고 있다. PC통신과 인터넷까지 공부할 계획이라고 하며 컴퓨터를 배우는 자부심과 열의가 대단하였다.

- 중앙초 5학년 2반 박준현 기자

여자 배구팀을 찾아서

하얀 공에 꿈을 담아 코트장을 힘차게 누비면서 오늘도 연습에 열중인 우리학교 여자배구부는 지난해 11월중에 개최된 제 25회 전남학생 종합체육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또한 지난 3월 14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 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남도대표, 최종선발대회에서도 강팀 목포 하당초등학교를 맞아 2:0으로 완승함으로써 금년 6월 초에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도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우리 배구부가 이번 대회에 우승하기 까지는 지난 동계훈련 기간에 전국 10개팀을 대상으로 약 20회에 걸쳐 150세트 이상의 연습경기를 하는 등 피나는 훈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 30회 전국소년대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더욱 훈련에 전력을 기울일 각오라고 합니다. 탐방울의 결과가 맺힐 수 있도록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 중앙초 6학년 2반 이수진 기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 곡성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이유는 먼저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중 어린이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많은 사고를 당했다. 왜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한 것일까? 인터넷을 통하여 그 의문이 풀렸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유는

1. 길가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도로까지 나와

서 사고를 당하고

2. 골목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도로로 나가서 공을 주워서 돌아오려고 할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3. 요즘 킥보드나 자전거, 브라이더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른들의 양심 어린 불법주차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저도 하교길에 보면 인도까지 차를 주차한 어른들이 많이 보였다.

불법주차는 막을 수는 없는 걸까? 조사를 해보았다. 그결과 불법 주차는 지금도 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경찰이 지나가면 다시 불법주차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못을 반성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못 지키다니 아주 이상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질서가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질서가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중앙초등학교 4학년 2반 김선행 기자

6월은 보훈의 달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타인으로 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살게 됩니다. 오늘에 내가 있는 것이 나 만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음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잘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수많은 목숨들이 이슬처럼 사라져간 것을 잊고 있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 보훈의 달을 맞아 위대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많은 애국지사와 오직 조국의 광복과 자유를 위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워 나라를 지킨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그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인간적인 임무임과 동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6.25사변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전 국토는 폐허가 되었으며, 우리 측의 인명 피해만도 무려 1,240여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 군경의 피해 상황을 보면 사망이 14만 7천여명, 부상이 71만 7천여 명, 행방불

명이 13만 2천여 명으로 무려 10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이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감사해야 하며 또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보훈 가족들의 어려움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보훈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또는 건강을 잃고서 피눈물나는 고통을 묵묵히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민족, 한 핏줄이기에 이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고, 또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우리들도 선조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는 데 정성을 다 해야겠습니다.

- 곡성중앙초등학교 5학년 박준현 기자

"섬진강 지금이 최대 고비"

"안녕하세요" 저는 곡성중앙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정환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섬진강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섬진강은 쓰레기와 폐수에 죽어가고 있고, 섬진강물이 오염이 되니 점차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가고 있다. 섬진강의 이름은 본래 모래내 또는 다사강이었으나, 고려 초기부터 두치강으로 불려오다가 고려 우왕(1366년경)때 섬진강으로 부르게 되었다.

섬진강 물은 임실군 운암면에서 갈담저수지로 흘러가고 곡성읍 북쪽에서 남원시를 지나 흘러드는 요천과 합류한 후 남동으로 흐르다가 압록 근처에서 보성강과 합류한다.

그러다보니 섬진강물이 오염되자 다른강들도 오염이 되기 쉽다 이문제 때문에 길이가 212.3km인 섬진강에는 여러 고기들이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에는 심하지 않던 쓰레기 처리가 올해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왔다 가고난 자리는 온갖 쓰레기로 발디딜 곳조차 없다.

섬진강은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안될 곡성의 젖줄...

하지만 지금은 섬진강은 몸살에 시달려 조금씩 옛날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섬진강 물을 살려야 고기들도 살고 고기들이 살아야 사람도 살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섬진강을 다시 돌아보고 쓰레기 버리는 습관을 고쳐 휴지 한조각이라도 줍고 집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 1%만 줄인다면 섬진강은 옛날에 썩썩하고 활기 찾던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 중앙초등학교 6학년 이정환 기자

깨끗한 영은천



학정리에서부터 읍내리로 흐르는 시냇가가 영은천이라고 한다. 이름으로 영은천은 바짝 스레기가 더럽혀져 있었 주민들이 버린 생활하수 각종 오물로 인하여 냄새

까지 지독했었다. 그런데 엿그제 내린 많은 비로 인하여 더럽혀진 시냇가가 깨끗해졌고 맑은 물이 흘러내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물장구를 치고 하루종일 물놀이를 했다.

같은반 친구 김현수는 "날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 계속 흐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또, 시냇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 중앙초등학교 2학년 1반 주용택 기자

6·25비극의 현장 태안사

해마다 8월 6일이면 어김없이 곡성 태안사에서 태안사 희생 경찰관 위령제가 열린다. 산사에 높이 세워진 추혼탑만 홀로 서 있을 뿐 역사의 현장은 말이 없다.

북한군이 파죽지세와 같이 남하가 곡성에까지 미쳤다. 1950년 7월 19일 곡성과 남원사이에 있는 금곡교 부근에서 곡성경찰서 병력을 배치, 군의 전술적 후퇴작전을 지원했다. 순자강과 섬진강, 보성강이 만나는 압록으로 전병력을 집결, 저지선을 구축하자 전술에 따라 경찰은 사수를 위해 태안사로 거점을 이동했다. 곡성읍내는 피난행렬이 시작됐다. 7월 25일 곡성경찰서의 병력과 물자가 모두 태안사로 집결했다.

이때 구례는 이미 북한군의 수중으로 떨어졌다. 곡성경찰서 유격대 본부는 태안사 보용전 앞 보계루였다. 이때 경찰과 군을 합해 모두 오백이십여명이었다.

7월 26일 곡성읍내 낙동원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축하는 곡성해방기념연회가 열렸다.

구례로 가는 17번 도로, 석곡을 빠지는 18번 도로, 곡성으로 나가는 17번 도로를 봉쇄하는 작전을 펼쳤고 7월 29일 압록 인도교에서 전투를 벌여 북한군 50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한다.

태안사 바로 뒤쪽 봉우리인 봉두산과 신승점 장군이 무술을 연마했다는 신유봉, 그리고 비래봉을 1,2,3 비상선으로 정하고 전투준비에 다시 돌입했다 한다.

8월 4일 한정일 곡성경찰서장이 치안국비상경비 총사령부로 '탄약등 보급물자를 공수해 달라' 며 '탄약 보급이 안되면 끝까지 항쟁하다 옥쇄하겠다' 는 마지막 무전을 했다.

태안사로 입산한지 13일째인 운명의 날 8월 6일 날이 밝기가 무섭게 북한군 105연대와 중공군 중심의 육사 단 15연대가 태안사를 옥죄며 총공격을 개시했다. 연대병력이 기습적인 총격을 가행하자 비상선을 달리하

며 싸웠으나 모두 48명의 경찰관이 희생되고 말았고, 태안사는 북한군이 점령해 버렸다.

경찰과 협조아래 석곡에 진지를 구축하고 작전에 투입했다. 이듬해 4월까지 화산 백아산 일대 빨치산의 중요 기동로 차단등의 활동을 벌였다. 작전중 4명이 숨졌고, 빨치산 15명을 사살했다.

우익학생 중심의 이 같은 단체가 결성돼 토벌 작전에 참전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빨리 조직됐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있다.

6·25동란 중 지리산과 섬진강은 동족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격전장이 되었다.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곡성지역도 주민들이 강게 이주당했다. 곡성지역만도 3천 4백 78호, 1만 8천 1백 29명이었다.

- 중앙초등학교 5학년 이현규 기자

살기 좋은 우리고장 고달면의 자랑

산 좋고 물 맑은 우리고장 고달면을 자랑합니다. 넓고 푸른 벌판에 하얀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있고 맑은 섬진강의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며 웅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우리 고장이 나는 항상 좋습니다.

우리 마을의 어디를 가나 인심이 좋고 경치가 좋아 자랑스럽게 우리 고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고장의 농사는 주로 논 농사와 밭 농사를 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기와 함께 오이를 기르며 옥수수를 심어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구의 90%가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기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산이 좋고 물이 좋아 어른들이 장수하며 소득도 높여 농촌에서 잘 살고 있는 고장입니다.

앞으로 얼마 후면 옥수수가 익어 판매를 하고 또 꽃을 재배하여 수출도 하며 과수원과 밭 곡식으로 소득을 높여 행복한 복지마을을 이룬다고 합니다.

비록 내용이 충실하지는 못하지만 어린이 기자로 선정되면 마을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지금은 기사정리가 미약하여 좋은 기사를 보내지 못했으나 앞으로 노력하면 곡성에서 제일가는 기자가 될 것입니다.

- 고달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선진 기자

꿈을 키워며 실천하는 우리학교의 특기, 적성 교육

우리학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고달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백년이 지난 느티나무가 있어 무더운 여름철에는 더위를 식힐 수 있고 잘 가꾸어진 화단에는 정원수 나무들이 잘 손질되어 아담하고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강직하고 굳건하게 자라나는 향나무를 교목으로 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 철쭉꽃을 교화로 하였으며 사시사철 푸른 학

교입니다.

우리 학교의 특색 교육활동은 단계적 서제지도를 통한 서사 능력 향상으로 2000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 주 월,화,목,금요일 4일간 상설서예부를 운영하여 곡성은 물론 전라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수상실적으로 학교이름을 빛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학교의 수상실적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4.1 ~ 2001년 6. 1일 현재 수상실적

년도별 수상실적	참가 대상	대회명	장소	수상실적
2000 7월 29일	3~6년	전남 붓글씨 공모전	광주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6명 •특선 1명 •입선 2명
2000 10월 8일	3~6년	광주 전남 붓글씨 공모전	광주	•금상 1명 •특선 2명 •입선 9명
2000 10월 10일	3~6년	호국문에 붓글씨 살기대회	광주	•입선 7명
2000 11월 7일	3~6년	전국 청소년 예술 공모전	곡성	•대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2001 4월 19일	3~6년	전남 붓글씨 공모전	광주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5명 •특선 1명 •입선 2명
2001 5월 12일	3~6년	광주 전남 붓글씨 공모전	광주	•금상 1명 •특선 2명 •입선 8명

우리학교는 이렇게 특기 적성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의 소질을 키우고 가꾸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학생수는 적지만 꿈을 가꾸고 다지며 희망찬 내일을 향해 열심히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여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과학실 및 미술실에서 상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실이 설치되며 음악감상 및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부가 조직된다고 하니 우리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고달초등학교 6학년 1반 진경미 기자

어린이 발언대-학교폭력을 예방하자



21세기의 밝은 빛인 우리 새싹들이 학교폭력에 의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학교의 전교 어린이 회장도 제일 먼저 학교 폭력예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후원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좀더 획기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비밀우편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학교는 학교폭력에 있어서 개개인의 담당자가 생겨 몰라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을 그냥 듣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예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모두 깊이 생각해서 의견을 보내주세요.

- 고달 초등학교 4학년 임희열 기자

환경지킴이가 된 고달초등학교



곡성군고달면 목동리...

이곳은 고달면에서 가장 크고 사람들이 많이 살며 여러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고달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입니다. 고달초등학교를 감싸고 있는 고달천은 이곳 마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곳입니다. 때문에 '고달천을 살리자'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환경보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달천의 오염이 심각하게 된 원인은 내 집앞이 아니라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교길에 군것질을 하고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도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환경 보전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단의 임무는 학교 주변 고달천의 쓰레기를 줍고 주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린 학생에게 경고를 줍니다. 또한, 주 2회 이상씩 고달천 청소를 봉사활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도 좋지만 버리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젠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 보전 활동이 호응이 좋아 이젠 각자 마을에서 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되었습니다. 고달리, 뇌죽리, 목동리, 대사리, 백곡리..... 물론 조직원들은 맘씨 좋은 우리 고달초등학교생들이랍니다. 이제 동네어르신들께서는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에 바쁘시답니다. 저희들이 고달을 살리다면서 말입니다.

여러 친구들도 내 주변에서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 고달초등학교 5학년 김다혜 기자

골짜마을 곡성 친구들에게...

안녕?

난 고달초등학교 5학년이 재학중인 김다혜라고 해. 우리 학군 6월 7,8일에 야영을 다녀왔어. 4,5,6학년만... 우리 야영 간담 소리를 듣자마자 바쁘게 야영 준비 계획을 세웠어. 우리 조원은 비교적 잘 구성된 편이었어. 장기자랑 준비 계획을 세웠어. 웬지 가슴까지 설레었어. 하루 하루가 너무 빠르게 가는 것만 같았어. 연습을 하는 내내 더웠는데, 우리 그 더위마저 잊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

드디어 6월 7일 야영 날이 되었어. 곡성교육청 차를 타고 야영장으로 향했어. 거긴 고달 어린이들만

온 게 아니라 죽곡 아이들도 와 있었어. 작년 야영 때는 죽곡과 사이가 나쁘게 헤어져서 그런지 얼굴을 마주 칠 수가 없었어. 우선 선생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텐트를 쳤어. 텐트 치는 건 작년이나 올해나 어려웠어. 난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 점심시간에는 김치볶음밥 맛있게 만들기 대회가 있었어. 우리조 6학년 언니들은 서둘러서 음식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조장언니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 우리 조는 안타깝게 2등에 그치고 말았어...

맛지고 맛있게 만들어진 우리 김치볶음밥을 먹고, 우리 본격적으로 야영활동에 들어갔어... 조가, 조구호, 조가를 6학년 언니들과 4학년 동생들과 함께 만들었어. 내가 보기엔 우리조가 제일인 것 같았지만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아니었나봐. 우리 이것도 2등에 그치고 말았어...

우리가 제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캠프파이어가 시작되었어. 우리 얼굴과 머리에 예쁘게 장식을 한 다음 텐트 밖으로 나갔어. 우리 장기자랑으로 사크라의 끝을 준비했는데, 글썽 죽곡도 똑같은 것을 준비해 온거야. 우리 당황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조장언니의 파이팅 소리를 듣고 마음을 굳게 먹었지. 죽곡은 죽곡이고 고달은 고달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그래두 막상 차례가 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 생각보다는 잘하고 내려온 것 같아 흐뭇했어. 반응이 좋았고 말이야.

장기자랑 시간도 끝나고 우리들의 캠프파이어도 끝났어. 선생님들께서는 텐트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는데 어찌 1년에 한번 오는 야영의 밤을 그냥 잠으로 보낼 수가 있겠어. 그래서 밤 늦도록 친구들과 별을 보며 이야기를 했지... 무슨 이야기냐고? 그건 비밀이지... 그렇게 야영의 밤은 깊어갔어. 그리고 여지없이 아침은 돌아오고 우리는 짐을 챙겨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집으로 향했어. 정말 두고 두고 기억에 남는 야영이 되었어. 골짜마을 친구들의 야영은 어떠했는지 궁금한걸? 나에게 답장 주지 않겠어? 그럼, 안녕!

2001년 6월 23일

- 야영을 훌륭히 마친 고달초등학교 5학년 김다혜 기자

섬진강의 유래...

섬진강은 전라 북도에서 시작해서 전라 남도와 경상 남도에 걸쳐 그 길이가 212Km로 우리 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긴 강입니다. 또한, 전국의 5대 강 중에서 가장 맑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섬진강은 경치가 아름다워 강 주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강물처럼 맑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런 섬진강의 명칭에 대한 유래를 한번 알아 볼까요?

옛날, 광양의 어느 마을 나루터에 늙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맘씨 착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두꺼비 한 마리가 처녀의 집으로 비를 피해 들어왔습니다. 이 두꺼비를 처녀는 장마가 끝난 뒤에도 한집에 살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덧 세월이 흘러 두꺼비는 큰 솔뚜껑만큼

이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동네가 큰비로 물에 잠기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처녀와 어머니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두꺼비가 나타나 모녀를 구해주었습니다. 두꺼비는 모녀를 구하느라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두꺼비가 죽은 자리에 무덤을 만들어 해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일이 있는 뒤 사람들은 두꺼비가 죽은 자리를 두꺼비 섬자와 나라 진자를 써서 '섬진'이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얘기도 전해옵니다.

고려 우왕 11년 무렵 왜구가 섬진강을 거슬러 오르며 왜구가 침입하자 새까맣게 물러든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 떼가 울부짖어 이를 두려워한 왜구가 광양쪽으로 피해 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꺼비 섬(蟾)자, 나루 진(津)자를 붙여 섬진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 고달초등학교 5학년 임현수 기자

동악산과 도립사 계곡

곡성의 제일가는 동악산과 도립사 계곡에 대하여 조사해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군 전체의 74%가 산일 정도로 산지가 많은 곡성의 대표적인 산중의 하나가 동악산이다. 곡성 읍에서 서남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는 해발 631m의 동악산은 노령산맥의 한줄기가 곡성에 이르러 힘차게 꺾이면서 이루어진 산이다. 신라의 명승 원효대사가 이산에 길상암과 도립사를 창건할 때 상서롭게 울었다 하여 동악산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수목이 울창하고 산수가 매우 뛰어나다.

도립사에서 출발하여 암자갈림길 - 길상암 - 바구리봉 - 형제봉 - 헬기장 - 배넉이재 - 도립사로 돌아오는 4시간 거리의 등산로도 한번쯤 타 볼만하다. 이 동악산 남쪽 골짜기에는 도립사라는 사찰이 있다. 태안사와 더불어 곡성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다. 원효대사의 창건설화와 함께 도선국사가 중창하고 고려때 지환대사가 3창하였다고 전한다. 이 도립사 일대의 계곡을 흔히 도립사 계곡이라 한다.

도립사 계곡은 밑바닥이 넓적하고 평평한 바위로 되어 있어, 그 위로 흐르는 맑은 물은 마치 비단을 펼쳐 놓은 것 같다. 수석의 경관이 삼남의 으뜸으로 평가 받는다. 반석이 폭 20-30m, 길이가 100m에 이르는 것도 있다.

우리의 관광소... 그것만이라도 우리 손으로 지켜 나아가 미래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

- 중앙초등학교 6학년 2반 이수진 기자



세상에! 똥으로 만든 종이도 있다니...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코끼리똥으로 종이를 만들어 쓴다. 이 코끼리똥 종이는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는데, 외국인들은 코끼리똥 종이가 신기하며 편지지나 편지 봉투로 쓴다. 물론 냄새는 나지 않고, 손에 묻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똥을 누듯, 동물들도 똥을 누듯. 그러나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들은 똥을 많이 누지 않는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는 하루에 3백~4백g의 똥을 누는데, 똥에 소화되지 않은 동물의 뼈가 그대로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늑대의 똥에서는 잡아먹힌 동물의 털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 늑대의 똥을 태우면 연기가 많이 나서, 옛날 사람들은 늑대의 똥을 봉화불을 피우는 데 자주 사용했다. 풀을 먹는 초식동물들은 똥을 많이 누듯. 동물중 똥의 왕은 코끼리다. 코끼리는 하루에 1백~2백kg의 똥을 누듯. 무거운 씨름 선수보다도 더 많은 무게의 똥이다. 코끼리의 똥은 소화가 덜 돼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곤충들이 매우 좋아한다. 코뿔소는 하루에 40~50kg의 똥을 누듯. 코끼리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초등학교 학생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똥을 누는 셈이다. 코뿔소는 꼭 한 장소에서만 볼 일을 본다.



전용화장실만 이용하는 것이다. 코뿔소는 자신의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꼭 치우고 볼 일을 본다. 매우 깔끔한 성격이다. 하마는 물속에서 똥을 누듯. 하마는 자신의 똥을 꼬리로 쳐서 사방으로 흩어 버린다. 똥으로 자신의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하마의 똥 안에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하마 주변에는 늘 물고기가 떼가 모여산다. 고릴라는 사람과 비슷한 모양의 똥을 누듯. 그러나 고릴라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람의 2배만한 똥을 누듯.

학생들의 팔뚝 굵기와 비슷한 똥이다. 새들은 날아다니면서 똥을 누듯. 새는 먹는대로 소화하고 바로 똥을 누듯. 똥을 자주 안누면 몸무게가 무거워져 하늘을 날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둥지 안에 있는 아기새들은 자신의 엉덩이를 둥지 밖으로 빼내 볼일을 본다. 사람들은 똥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싫어한다. 그러나 똥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똥을 누지 않고서는 살수 없다. 식물들도 동물의 똥을 먹고 산다.

어니스트 그라파사 갈릴레이의 실수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말 잘 아시죠?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 말이다. 갈릴레이는 "피사의 사탑" 이야기도 유명하죠. 갈릴레이는 피사의 사탑 위에서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려 두 물체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가 정말 그 탑에서 실험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뛰어난 과학자인 갈릴레이가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달의 인력 때문이죠.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면서 바닷물이 해변으로 몰려왔다 쓸려나 갔다 합니다.

그런데 갈릴레이는 밀물과 썰물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했어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과학실험의 아버지로 불리는 갈릴레이답게 그는 물통을 이용한 실험으로 이 주장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주장과 실험은 모두 틀린 거지요. 그러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를 비웃지는 마세요. 갈릴레이는 훌륭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하듯 과학자들도 실수를 합니다. 다만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 않고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그들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수를 겁낸다면 과학의 발전도 없다고 할 수 있죠.

돈 이야기

돈은 어디서 만드나요?

우리나라에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은행중의 은행"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지폐를 보세요.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돈을 얼마나 발행할지는 한국은행의 결정이지만 이것을 직접 찍어내는 곳은 따로 있어요. 한국조폐공사라는 곳입니다. 돈을 찍는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텐데..."라고.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건값(물가)이 오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집니다.

돈 만드는데 드는 돈은 얼마나 돼요?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없애버리는 지폐는 한해동안 7억 6천만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8톤짜리 대형트럭에다 실으면 1백대가 넘고, 한 장씩 세로로 이것을 이으면 그 길이가 서울-부산을 1백 40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돈을 만들기 위해 드는 돈! 자그마치 한해에 1천억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돈을 깨끗하게 쓰면 이것을 절약할 수 있다는거죠. 동전도 아껴야 해요. 10원짜리 동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0원을 넘는다고 하니 말이죠.

돈 방식은 정말 있나요?

돈을 많이 번 경우를 말합니다. 어원은 삼베와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화폐가 있었지만 조선시대 말기까지 물품을 화폐 대신 쓰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특히 배는 양쪽 끝에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 화폐를 대신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장난삼아 방식처럼 깔고 앉은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요 희망이다

곡성문화원의 어린이 신문 발행을 축하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요 희망이다. 그러므로 어른이나 국가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 주어서 장차 훌륭한 국민으로 자라, 인류의 자유와 평화,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대는 것보다 밑에서부터 성하여 위로 오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이라고 볼 때 이번에 우리 곡성문화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신문을 발간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경하할 일이다.

과거의 주입식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관찰과 이해를 통한 문제해결형 탐구학습, 창조적 지식개



전남과학대학장 경영학박사
임 일 남

발 교육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때에 어린이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논리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준다는 것이 여간 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곡성지역은 아름다운 산지가 많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청정한 섬진강, 보성강이 흐르고 있어서 자연과 접할 기회가 너무나 많다.

문화란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인간의 생각과 노력을 더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아름다운 산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할 것이며 올곧고 풍요로운 인심은 자연과 사물을 포용하는 문화, 긍정과 협력, 상생의 문화를 배태할 것이다.

우리 곡성군은 산간농경지역이어서 산업사회에서 단일품목의 획일적 대량생산 시대에서는 뒤졌지만 소량 다품종 생산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 시대에는 창의적인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서 크게 발전하리라 믿는다.

관내에 9개 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 그리고 지방 면소재지에 있으면서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남과학대학이 있어서 인재양성에는 어느 군지역보다는 교육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일찍부터 옥곡권을 짊어고 광만이 있는 대학촌 건설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온 곡성군(군수 고현석, 군의회 의장 이영진)은 이번에도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정으로 옥곡권은 대학촌 건설, 곡성읍은 아름다운 전통문화(농악, 꼬마잠자리) 소도읍으로 가꿀수 있는 기대가 한껏 커졌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특색 있는 교육도시 곡성군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가꾸어주는 여러분 고향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곡성문화원 발간 어린이신문이 이러한 계기를 만들고 복돋우어 우리 어린이들이 가슴을 펴고 세계를 바라보는 창조적 인간으로 커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형제봉 해돋이

"따르릉"

벨소리에 일어나보니 새벽4시다. 두꺼운 외투에 모자와 목도리를 하고 아빠, 엄마를 따라 나섰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 반짝 빛나고, 온 세상은 하얀 눈이 쌓여 있었다.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아빠 뒤에서 열심히 따라갔다.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아 발을 헛 딛었다. 넘어져서 아프지만 나는 꼭 참고 계속 산을 올라갔다. 산에서 아저씨, 아주머니.....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수고하십니다', '애쓰십시오'

어머니. 어린녀석이 대단하구나. 산 중턱쯤 올라갔을까?

아빠 친구분을 만났다. 함께 간식을 먹고 정상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아빠께서는 힘들어 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난 엄마를 뒤에서 밀었다.

세상은 조금씩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무를 붙잡고 줄을 당기면서 힘들게 정상에 올라갔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다.

"야호", "야호"

해가 구름사이로 올라오고 있었다. 산이 온통 빨갛게 물이 들었다.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이 빨갛게 보였다.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나만의 소원을 두손 모아 마음속으로 빌었다.

제사를 지내고 사진도 찍었다.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 집들이 장난감같이 작게 보였다. 산을 내려오는길에 엄마는 눈 위에서 미끌어져 영

당방아를 쪼갰다. 아빠께서는 엉덩이에 묻은 눈을 털어 주시면서 엄마에게 눈을 던졌다.

눈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큰 소리로 웃었다. 웃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멀리 멀리 울려 퍼졌다.

- 서초등학교 2학년 1반 김초희 기자

물과의 약속을 꼭 지키자.

우리학교에서는 2년전부터 에너지절약 일기를 날마다 쓰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실천 일기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집안의 모든 수도 꼭지도 확인하고 필요없는 전기 스위치도 끄고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텔레비전, 충전기의 코드를 뽑는 등 눈에 보이거나 마음으로 느끼어 지



면 즉시 확인해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일기를 쓴 뒤로 우리 가족은 양치질은 물 1컵으로 끝내고 소변과 대변을 보고 나서는 손잡이를 구분하여 잘 사용하고 남자들의 머리는 비누로 감고 어머니는 일주일마다 한번만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고 우리 가족은 물과의 약속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빛을 간직하고 있다는 섬진강은 파란 물감을 칠한 것처럼 푸른 강물에 우리가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소변보고 그릇 씻는 물들도 섬진강으로 모여서 흘러간다.

자연시간에 배운것인데 우리들의 몸도 70% 이상이 물로 되어있고 바다가 육지보다 크다고 배웠다. 물과의 약속을 하였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물이나 공기 그리고 흙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없어서는 안될 물이나 공기를 너무 함부로 대하고 또 너무 사용하고 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맛있는 음식은 골라 먹을 수가 있지만 마시는 공기는 골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소중한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대신할 자원이 없으니가 가장 아끼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름값과 맛있는 물을 사먹고 있는데 기름보다 비싼 물을 보호하려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물을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약속을 굳게 하고 물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실천해보자.

- 서초등학교 4학년 2반 곽광휘 기자

자랑스러운 창립 어린이들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에 자리 잡고 있는 창립초등학교는 한글 서예, 수묵화를 아주 잘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류종택'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글 서예는 우리 고유의 예술이며 또한, 수묵화는 심상의 표현 활동이라는 점이 아주 좋은데요.

바른 심성을 가꾸어 가기에는 서예 예술활동 만큼 좋은 것도 드물다고 보입니다.

전남 곡성에 자리 잡은 창립초등학교는 '곡성 서예 연구 학교'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서예란? 정의적인 면에서도 생활 태도가 차분해지고 끈기가 길러지는 것과 동시에 집중력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생활화 활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좋은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학교이지만 보람되게 하루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창립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철저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 못하는 활동이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발달하여 우리나라의 반이 서예를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한국보다 고구 문화를 생각하고 조상들의 슬기를 이어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옛 조상들을 생각 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창립 초등학교 선생님,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호남 서예전에서 우리 학교도 우수한 성적에 올랐습니다. 창립초등학교는 비록 작은 시골 학교이지만 도시 못지 않는 어린이들의 실력과 바른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인도를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더욱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좋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 창립초등학교 5학년 1반 김 무른 기자

삼재자생화 농장을 찾아서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에 있는 삼재자생화 농장에 가시면 여러 가지 야생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보지 못했던 새우란, 앵초, 병아리 눈물, 애기 도라지, 애기 코스모스, 할미꽃, 난초 등 수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야생화 꽃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꽃이 바로 금낭화입니다. 수줍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줄줄이 땅을 향해 종모양으로 피어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 만들기 코너도 있는데 화분을 만들 때에는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 수 있어서 좋고, 또 야생화 10가지를 외우면 예쁜 화분에 담겨있는 야생화 꽃 하나를 준다고 합니다. 1년에

| 독 후 감 |

“엔터리기사 돈키호테”

고달초등학교 6학년 1반 진경미 기자

우리들은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간접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책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돈키호테”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유럽 중세 시대 기사들에 대해 들어 본적 있나요?

악인을 물리치고 착한 이들을 구해주는 기사들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가슴을 정의로움으로 가득 채워 주지요.

하지만 돈키호테는 이 때까지 보아 왔던 기사들과는 전혀 다르답니다.

돈키호테는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가 당시 유행하고 있던 기사 이야기의 책의 악영향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 쓴 책이라고 합니다.

돈키호테의 실제 제목은 “재기발랄한 향사 돈키호테 라 만차” 인데, 기사 이야기에 취해 자신을 정의로운 기사로 여기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돈키호테가 충직한 부하 산초 판사와 함께 벌이는 기사 모험담입니다.

영웅한 행동과 지나친 상상력으로 언제나 사고만 일으키는 돈키호테이지만 마음 속에는 정의로움과 따스한 인간애가 가득 차 있으며,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을 읽는 이에게 웃음과 재미, 감동을 선사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자신의 이상을 좇는 돈키호테의 모습은 아름답기조차 합니다.

우리들도 돈키호테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모험과 이상을 꿈꾸며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돈키호테는 비록 우스꽝스럽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정의를 위한 용감한 행동을 우리가 모두 본받아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돈키호테처럼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하나씩만 준다고 하니 욕심을 부리지는 않으시겠죠?

이제 화려한 꽃 말고 우리 자연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야생화 꽃들을 많이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창립초등학교 제 6학년 김은정 기자

“홍역 예방접종 조기 완료”

작년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홍역이 금년도에도 지속적을 늘고 있어 정부에서는 “홍역 퇴치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21일부터 6.30일 까지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 하기로 하였는데, 곡성군 홍역예방접종 대상은 26개교 2,634명으로 군에서는 보건의료원(원장 김영락)을 중심으로 9개반 51명으로 접종을 실시 하였으며, 예방접종율은 99%에 이르고 있으며 미접종자 21명은 접종금지자, 허약자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홍역접종율을 높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아울러 군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람중에서 이상반응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관내 15개 의료기

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이상반응자 발견시 보건지소 및 보건의료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급변에 실시한 홍역퇴치사업이 초기에 결실을 가져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홍역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여서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창립초등학교 5학년 1반 윤선 기자

선현들의 아름다운 풍류 <도림사>

지방 문화재 자료 22호인 도림사는 곡성읍에서 서남쪽으로 4Km 떨어진 동악산 줄기인 형제봉 중턱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림사’라는 이름은 도선국사, 사명대사, 서산대사 등 도인이 많이 모여 들었다고 하요 지어진 이름입니다. 도림사는 신라 무열왕 7년인 660년에 원효대사가 사불산 화엄사로부터 이주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는 웅진당, 지장전, 칠성각, 요사채 등이 있고 절 입구에는 허백련 화백이 쓴 ‘오도문’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 독 후 감 |

퀴리부인의 곳곳한 자립심

고달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진진 기자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나는 그중에서도 <퀴리부인>이란 책을 읽고 느낀 것이 많다.

이 책을 읽게 되면 퀴리부인의 자립심, 끈기, 애국심 등 감동적인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은 퀴리부인의 자립심이다. 마치 아기 나무가 모진 비바람을 맞아 싸운 끝에야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퀴리부인도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까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살아왔던 것이다.

어머니를 여의고, 조국 폴란드를 잃고..... 또,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여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

퀴리부인이 여자의 몸으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태우며 주위를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구석에 빛을 보내는 것과 같은 신념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연구 생활에 큰 도움을 준 남편 피에르를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잃고도 다시 일어나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초라한 헛간에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의 결실, 라듐을 발견했을 때 퀴리 부인의 기쁨은 마치 일제의 압박에서 풀려난 우리 국민의 기쁨과도 같았을 것이다.

라듐으로 인하여 인류의 꺼져가던 생명들을 구해 노벨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한 것도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낼 놀라운 일이다.

퀴리 부인의 그 모든 업적의 근본은 자립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퀴리부인이 그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면 오늘날에도 암치료와 그 밖의 여러 치료에 쓰이는 X선을 발견 하지 못하여 아직도 수많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꺼져가던 많은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으니 말이다.

만약, 나와 퀴리 부인의 처지가 바뀐다 하더라도 과연 나는 퀴리 부인같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거리에서 꺾말이, 신문팔이를 하는 소년소녀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큰 신문통치를 옆구리에 끼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모습, 정말 힘찬 모습이다. 전에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옆에 가기도 꺼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의 자립정신을 본받고 싶다.

이젠 나도 내 일은 내 스스로 하고 집안일도 도와야겠다. 가정교사로 일해 번 돈으로 언니를 파리의 대학까지 보낸 퀴리 부인처럼 말이다.

지방 기념물 101호로 지정된 도립사 계곡에서는 노송과 폭포들이 어우러진 절경을 볼 수 있고, 동약산 남쪽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동약 계곡, 성출 계곡에는 구비마다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넓은 바위에 앉아 반석 위로 흐르는 맑은 계곡 물과 바위에 음각된 선현들의 문구를 보면서 선현들의 여유로운 풍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도립사 계곡을 따라 정상에 오르는 길에서는 전망이 좋아 신선도 쉬어간다는 넓이 30평에 달하는 신선바위와 등산코스 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형제봉도 만날 수 있습니다.

- 창립초등학교 6학년 김준 기자

계절마다 특유의 아름다움 <태안사>

동리산 자락에 위치한 태안사는 신라 경덕왕 원년인 724년에 해철선사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안사'로 불렸던 태안사는 불교의 구산선문 중 하나인 동리산파의 본산지로 선암사, 송광사, 화엄사, 쌍계사 등을 거느리며 꽤 오랫동안 영화를 누렸던 사찰입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광자선사가 32칸으로 넓혀 증건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효령대군이 머물며 왕가의 온당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태안사 경내에는 해철선사의 사리탑과 광자선사를 기리는 탑과 비 등 등 볼물 4점이 있으며, 태안사 바라와 동리산 계곡 절묘한 자리에 세워진 능파각 등 9점의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역사의 자취를 안고 있는 태안사는 도 문화재 자료 23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 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 태안사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태안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의 절경을 찾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성강 하류 나루터에서 절을 찾아가는 길은 아름다운 산책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책로에서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계곡과 기암절벽 밑으로 흐르는 맑은 물, 하얀 모래밭이 어우러진 절경을 볼 수 있다. 계절마다 봄에는 신록,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녹음, 가을에는 짙게 물든 단풍이라는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어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 창립초등학교 6학년 김수형 기자

진정한 우정을 만들려면!

우리는 '친구' 하면 그냥 필요하지 않은 존재. 또한 그냥 자기의 말동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거나 쓸쓸할 때에는 친구를 찾는게 대부분이다. 나 또한 친구에게 좋지 않게 대하다가

내가 아쉬울때만 찾고, 잘해 주는 척해서 친구를 고신다.

좀 안좋게 말하면 친구를 그런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식으로 친구와 갈라지거나 친구를 잃는 그런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진정한 우정을 지켜가고 있는 친구도 있다.

언제나 어려울때 함께 도와주고 서로 생각해주어 가면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가끔씩 책을 읽다가 또는 TV를 볼 때, 그런 장면, 그런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때가 있다.

그럴때에는 '아, 나도 저런 친구가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그런 말을 하기전에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자, 그럼 한 번 어떤 사람이 되어야하나 알아보자. 첫째,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 자신만, 나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좋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남도 생각해 줄 수 있고 서로의 기분을 맞춰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 누구든지 그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기쁨과 슬픔을 서로 같이 나누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각자의 버릇, 각자 다른 성질이 있다. 생활 환경의 차이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 또한, 서로 기분이 안좋다가거나, 서로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면, 정말 서로가 안좋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할 줄 알고 좋게 대한다면, 정말 참다운 우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즉, 자기 자신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지 생각 해보고 친해지려고 노력한다면 공든답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친구와의 참다운 우정은 믿음에서 싹트고 어려울 때 피어 날 것이다.

즉, 참다운 우정은 어려울때 비로소 알고,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만으로도 친구와의 진정한 우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우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자.

-입면초등학교 5학년 1반 박성진 기자

아름다운 여수로 놀러오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바다가 아름다운 여수예요. 온갖 수산물과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 특히 동백꽃으로 유명한 오동도는 아름다운 꽃의 섬이에요. 저는 오동도에서 그때 멀리 않은 곳에서 산답니다. 오동도에서는 예쁜 동백꽃도 볼 수 있고 멋진 보트도 탈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하얀 물거품을 품어내는 보트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전 식구들이랑 몇 번 타보았는데 빙~원을 그리며 달릴 때 그때의 짜릿함과 상쾌함이란 타보지 않은는 모른답니다.

참 보트를 탈 때 왜 주황색 조끼를 입는지 아세요? 알고 계신 분도 있었지만... 빠른 물살을 달리는 물살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에서 몸을 보호하려고 그렇대요.

오동도에서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자산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여수의 수산물도 맛볼 수 있답니다. 필적 필적 살아있는 여러 가지의 해산물과 생선들이 얼마나 싱싱하고 맛있는지... 여수에 오면 꼭 맛보세요!

어때요? 이만하면 우리 여수 한번 놀러오고 싶으시죠? 정말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여수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여수자산초등학교 3-1 정지혜 기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요즘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집집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은 거의 있고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으로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부에 도움은 물론 속제 할때도 두꺼운 사전을 이

리저리 뒤져서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오락이나 게임을 즐길 수 도 있고 친구들이랑 메일을 보내며 이야기도 쉽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인터넷이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만 주는 것 만은 아니다. 어떤 사이트들은 어린이들이 보면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를 여기서 몇 개 소개해 보려고 한다.

주 소	관련교과	비 고
www.way2study.co.kr	전 과목	무 료
www.edubox.com	전 과목	무 료
www.littlefox.com	영 어	무 료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을 주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어린이들에게 나쁜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잘 생각해보고 우리 어린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수자산초등학교 5학년 1반 송다는 기자

자살 사이트 때문에

서울 OO여고에서 컴퓨터 자살 사이트로 만난 몇몇 학생들이 컴퓨터 중독으로 이모양 집에 놀러가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술을 사다 마시고, 김모양이 술주정을 한다며 때려 살해하고 12층이나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 자살하거나 또는 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로 일어나는 자살 싸이트나 폭탄 싸이트 등 신종 범죄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결과 자살이나 범죄에 빠져드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주변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삼기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수진 기자

컴퓨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10대

요즘은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98%로 나타났다.

도대체 누가 될 하길래 그렇게 컴퓨터를 많이 쓰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 방송국에서 조사한 결과 10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디아블로, 포트리스, 스타크래프트 등 요즘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과 인터넷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혔다.

요즘 PC방에는 10대로 꽂 차 있는데 앞으로 PC방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앞으로 인터넷과 게임을 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대들이 컴퓨터 문화에만 빠져들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악, 탈춤 등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건전한 10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삼기초등학교 6학년 1반 박은숙 기자



자식은 몸으로 가르치자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역시 부모님께 효도는 못하고 살지만, 자식에 대한 애정은 다른 부모들에 견주어 크게 다를 바 없이 무척 애정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그러나 시대가 소수의 핵가족화로 변화하면서 대개의 사람들이 자식들에 대한 과잉보호로 인하여 이 사회는 지나친 이기주의, 개인주의, 무질서가 만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기야는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폭행하며 심지어는 흉기까지도 무차별 부모에게 휘두르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지금의 세대는 어디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일까?

혹 자식에 대한 분별없는 지나친 편애에서 기인된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있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면 모든 사회현상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 그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특하면 학교 교육이 문

제라느니, 이 사회가 문제라며 흥분하지만 사실 제1차적인 책임은 우리 학부모들의 책임이다.

심리학자들의 분석대로 인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가정인데 아이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모방이 아니던가.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다. "아이들 보는데 찬물도 못 마신다"고

또, 옛말에 자식을 효자로 만들려면 부모가 먼저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서로를 존중하며, 부모가 먼저 효자가 되어라 하지 않았던가!

이는 자녀들의 모방심리를 이용한 우리 선인들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 생활속에서 부모님들 스스로 책을 보고, 근검절약하며, 윤리적 토대 위에서 화기애애한 가정을 꾸며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입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곡성경찰서
김 신 환

는 선생님들이, 사회에서는 기성세대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는 몸 교육을 하여야 한다. 요즘 부모님들, 자녀 사랑도 좋지만 그 사랑이 넘쳐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 잘 잘못을 별로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위험한 맹목적 사랑인가. 참 교육이란 바른 윤리의식을 가르치고, 사회성을 길러주어야 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과 봉사와 헌신을 가르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아직 의식이 부족한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누우치고 깨달도록

지적해 주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의 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미운아 이 떡 하나 더주고 예쁜아이 매를 든다는 우리 조상들의 말은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참 지식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즘 학부모님들에게 제시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잘못함이 명백한데도 이러한 지적없이 흐지부지 한다거나 심지어는 두둔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식은 옳고 그름의 가치관의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되고, 또한 부모들의 지나친 애정이 자식의 나약함과 타임을 양산하여, 결국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너무 쉽게 의지를 상실함으로써, 자식의 앞날을 망치는 일이 된다면 이는 그 자신으로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행과 손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나친 부분은 끊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준다는 절정보단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가르침에 있어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넘치는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난 우리 학부모들부터 솔선수범하여 평생교육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1 독 후 감

소공녀

고달초등학교 4학년 진설이 기자

인도에서 런던으로 긴 여행 끝에 세라와 그의 아버지가 도착하였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얼마나 재밌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께서 세라를 런던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 공사일로 몇 년동안 정화학원에 세라를 맡기기 위해서이다. "세라라는 아이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자랄까?"라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슬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는 울지도 않고 명랑하게 자랐다.

"세라라는 아이는 나처럼 겁쟁이가 아니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명랑하게 자라다니..."

그후, 몇 년이 흐른 어느날 세라를 돌보고 있는 민턴선생님 앞으로 편지가 왔다. "편지내용은 무엇일까?" 하며 나는 점점 그 책에 빨려들어갔다.

편지내용은 세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세라가 너무 불쌍해... 어머니도 모자라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다니..." 민턴 선생님은 더 이상 세라를 맡을수가 없었다. 왜냐하면은 세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세라는 거지이고... 더 이상 학비를 대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세라가 너무 불쌍하여서 참을수가 없었다. 이제 세라는 정화학원의 학생이 아니다. 하녀가 된 셈이다. "그렇게 힘든일을 세라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겼다. 세라는 하녀라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 "얼마나 힘이 들까" 세라가 정말 안됐다.

그런지 몇 년후...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아저씨를 세라는 우연히 보았다. "정말 흥미진진한데..." 아저씨는 세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왜냐하면은 그 아저씨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재산과 다이아몬드 산이 모두 세라의 아버지였다는 거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세라 참 잘됐다." 이제 세라는 다시 여전한 귀족이 되었다. 그리고 민턴선생님의 학원에서 나왔다. 나는 이책을 읽고나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생활에 잘 따라준 세라가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 책에 의해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라였으면은 그랬을까? 라는 것이다.

곡성군 초등학교 3학년이상 친구들 7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문1)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 1위 : 잘사는 나라 만들기 - 16명
- 2위 : 불우한 사람 돌보기 - 14명
- 3위 : 깨끗한 나라 만들기 - 13명
- 4위 : IMF극복하기 - 9명
- 5위 : 남북통일 - 7명
- 기타의견 - 11명
- 술과 담배를 끊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 공중에 떠서 다니는 길을 만들겠다
- 마음의 부자로 만들겠다 — 등등

문2)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1위 : 금강산 구경을 하고싶다 - 19명
- 2위 : 백두산 구경을 하고 싶다 - 9명
- 3위 : 북한 말을 배우고 싶다 - 8명
- 4위 : 북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 8명
- 5위 : 북한 생활방식에 대해 알고 싶다 - 6명
- 6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 3명
- 7위 : 북한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 2명
- 기타 의견 - 15명

동지 어린이 신문 선정 이달의 애국지사

□ 윤정구(尹正九)

- 본 관 : 남원
- 출 생 지 :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 생 존 시 대 : 1882 ~ 1953

• 설 명 : 곡성의 항일운동사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겼음에도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예우를 받지 못한 열혈애국지사다. 그는 육척장신의 체구에 사람을 압도하는 비범함과 지용을 갖춘 인물이었다.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던 그는 1905년 일제가 강압적으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 고종이 퇴위하고 군대마저 해산 당하자 이에 격분 의병을 조직하여 치열한 항일전쟁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함께 창 의한 공성찬, 임세묵, 임기숙, 임기서 등과 함께 남원, 순창, 함양, 거창, 곡성, 구례 등지의 섬진강 유역을 무대로 지방토호로부터 군자금을 거둬들이고 무기를 마련하여 일제의 군정에 대항하였다. 신출귀몰한 유격전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군을 격퇴하여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말할수 없는 약조건에서도 최후까지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였던 공은 1909년 10월 일제의 헌병에게 체포되

어 15년형을 언도 받고 7년만에 출옥하였다. 당시 먼저 붙잡힌 동지 공성찬 임세현 등은 이미 교수형을 당한 상태였지만 그는 일제의 국경일(천정일)에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면했다고 한다. 출옥과 동시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뒤따랐지만 그는 운동자금을 상해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등, 끝까지

지 항일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광복 후에도 잊혀진 항일의병역사로 외롭게 살다간 공의 행적은 뒤늦게 세상에 알려져 정부는 1982년 대한민국건국포장을 1990년에 다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항일애국지사 윤정구 의사 지묘 (소재지 : 곡성군 곡성읍 도림사 입구)



문화재 답사요령

한상수(대전대 교수)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문화국가라고 하고 그 나라 국민을 문화국민이라 한다. 우리 나라도 경제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조차 다르다. 그런 결과로 과거에는 관광도 보는 관광 또는 놀이관광이었던 것이 오늘날은 문화관광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도 문화재를 둘러보고 난 뒤에 허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문화재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서 문화재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재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문화재를 관람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먼저 문화와 문화재부터 알아야 한다. 문화는 그 나라사람들의 생활양식의 실제(자료)라고 하겠다.

문화재를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안내판을 꼭 읽어야 한다. 그런데도 재미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안내판에 써 놓은 용어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읽으나 마나 한 것이다. 그래서 안내판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다.

문화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표현한 등급부터 알아보는 것이 더 좋겠다. 문화재는 그 속성에 따라 유형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한다. 유형문화재란 건조물, 전적, 고문서,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하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는 국보와 보물이 있고 시·도에서 지정하는 유형문화재가 있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민속놀이 등 전통생활 속에서 전해오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가치가 있는 예능 또는 기능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무형문화재가 있다.

기념물은 패총, 고분, 성지, 궁지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과 동물(사식지, 번식지, 도래지), 식물(자생지), 광물, 동굴로서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과 시·도에서 지정하는 기념물이 있다. 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 연중행사 등에 관한 관습 및 풍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민속자료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민속자료가 있다.

이상은 문화재의 속성에 따른 문화재의 가치를 알아보았다. 문화재를 지정권자에 따라 그 등급을 살펴보면 재미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가 있다.

시·도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다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적은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아래와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1.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지정한 것이다.
2. 보물: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드문 것을 지정한 것이다.
3. 사적: 기념물 중 유사 이전의 유적, 제사, 신앙, 정치, 국방, 산업, 교통, 토목, 교육, 사회사업, 분묘 등의 유적으로서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이다.
4. 명승: 기념물 가운데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서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이다.
5. 사적 및 명승: 기념물 중 사적지 또는 명승지로서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이다.
6.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와 식물의 자생지 그리고 광물동굴로서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이다.
7.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 가치가 뛰어나고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이다.
8. 중요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또는 관습과 이에 사용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이다.

시·도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시·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시·도 지정문화재를 반드시 '00 시 유형문화재 제 00호 000'과 같이 시·도 명칭을 표시하여 놓았다. 문화재 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건조물, 사적 등의 구분없이 '00도 문화재 자료 제 0호 000'로 표기되어 있다.

앞에 표기한 문화재 등급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UNESCO)을 말한다.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창경궁, 종묘, 석굴암, 팔만대장경, 고창 고인돌, 경주 등이 있다.

문화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선 안내판에 지정된 등급에 따라 문화재를 이해하고 그 아래에 써 놓은 해설을 살펴보고 난 뒤에 문화재를 관찰하면 이해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까지 주마간산격으로 보던 문화재 관람을 차분하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문화재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관람한다면 즐거운 답사가 될 것이다.



국성문화원 어린이 신문 기자단 명단

학 교 명	성 명	학 년
중앙초등학교	이 수 진	6
	김 아 영	6
	이 현 규	5
	박 준 현	5
	홍 섯 별	4
서초등학교	홍 수 정	4
	주 용 택	2
	박 상 진	5
	김 영 미	5
	이 세 라	5
오곡초등학교	김 도 현	5
	곽 광 회	4
	김 초 희	2
고달초등학교	정 보 람	6
	진 경 미	6
삼기초등학교	김 선 진	6
	김 다 혜	6
	임 현 수	5
	진 설 이	4
	임 희 영	4
	임 가 영	3
	김 수 속	6
	김 수 진	6
	최 수 진	6
	창립초등학교	김 수 형
김 준 우		6
박 민 호		6
김 은 정		6
윤 선		5
임면초등학교	김 푸 른	5
	김 혜 수	4
	서 은 혜	6
여수자산초등학교	박 성 진	5
	송 다 은	5
	정 지 혜	3

어린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동지 편집부로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가족과 함께 다녀온 여행기, 책을 읽고 느낀 이야기 그리고 생활하면서 느낀 환경에 대한 이야기 등을 시, 수필, 만화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서 보내주세요.

새로운 동지 기자단 친구들을 찾습니다

◆ 관심있는 친구들은 동지 편집부로 연락주세요.

◆ 편집부 연락처: 국성읍 읍내리 776-4

국성문화원 내 동지 편집부

TEL: 061-362-0890, 363-7300